



부안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17일 부안관광호텔에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경기·김슬지 도의원, 부안군의원, 의용소방대 대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의용소방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지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서남상의, 광주국제청장 초청 간담회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희필)는 17일 광주지방국제청장(청장 김학선) 초청하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음·고창·부안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제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서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제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단 대응 역량 강화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7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김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 및 재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김제=박태기 기자



남원 금동,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올해도 추진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래)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씨감을 심고 가꾼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사업을 올해도 시작, 3월 17일 마을 유흥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씨감자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 이영노 9동장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씨감자, 퇴비, 농자재 등도 지원받아 동 직원과 통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이 주민들과 씨감자를 심으며 공동체 활동 의미를 더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감자와 고구마를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사업으로,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밀착형 나눔 활동으로 추진, 지난해 금동, 주민 참여 우수 시책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얻었으며, 수확 후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 어르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민 안전 지켜온 숨은 영웅

도,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17일 전주완산소방사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 이오숙 소방본부장,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화재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대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무총리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그동안 재난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여준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 지원은 물론 산불예방소방과 안전캠페인,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 안전 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만호기자



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 지원은 물론 산불예방소방과 안전캠페인,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 안전 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만호기자

전주시, 호텔업계 관계자 초청 관광산업 활성화 간담회

전주시는 17일 전주꽃심호텔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용선중 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호텔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텔업계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업계의 생생한 경험과 관광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관광산업 발전 및 호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시에서도 행사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기자



앞장서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시에서도 행사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기자

고창군-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여성일자리 창출 협약

고창군이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허명숙)와 최근 고창을 주된행복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내 15개 협력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중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질바제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주재만), 연경전자(주) 고창지점(대표 김경옥), 농민회사법인 고창명주(주)(대표 김영동),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현정), 늘푸른주근호호센터(대표 장병희), 웰파크호텔(대표 이종근), (주)타온(대표 유승준)이다. 참여 기업들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 등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용 확대 등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선운산농협, 2025 농협 판매대상 '산지유통부문 우수상'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이 산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시상사에서 '산지유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선운산농협은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수박과 멜론을 중심으로 정식 단계부터 재배관리, 수확, 선별, 출하까지 전 과정을 직원이 농가와 함께 현장에서 관리하며 산지 유통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선운산농협의 수박과 멜론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개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성장한 약 130억원, 2025년에는 9% 성장한 152억 7,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블루 시스템 및 유통망 개선을 통한 신규 출하 농



가 확보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규격화된 물류 시스템 도입 및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실로 풀이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 아영면, 홀몸 어르신에 극세사 이불 전달

남원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운자)는 지난 13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극세사 이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민 결의로 직접 찾아가는 '1일1가구 소풍행진'을 통해 발굴, 해당 어르신은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낡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잠을 설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아영면은 해당 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즉시 선정하고, 어르신이 남은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보온성이 뛰어난 극세사 이불을 마련해 전달했다. 어르신은 "포근한 이불을 챙겨주니 이제야 마음 편히 잘 수 있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장애인 독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철, 권기환)는 3월 17일, 관내 장애인 독거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1일 1가구 가정방문에서 발굴된 가구로, 장애로 인해 청소와 정리가 어려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집 안팎의 목은 먼지와 생활폐기물을 정리하고 주거공간을 정돈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강철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불법투기 집중단속·환경정비 활동

전주시는 17일 시·구·동 공무원과 관할 권역 환경관리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산구 일원에 대한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서서하동과 삼천2동 취약지 위주로 실시된 이날 활동은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 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앞으로 해당 취약지 이외에도 각 동의 취약지 등을 집중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 투기 방지 및 일몰 후 배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권순임 국립군사대 동문, 발전기금 200만원 기부

국립군사대학교는 17일 이동학부 동문 권순임 원장이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발전 기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발전 기금은 국립군사대 이동학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추체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농협,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나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관할 7개 동과 7개 면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농기계 보유 농가가 많은 보절면 지역에서는 TYM, (주)대동, 엘에스엔트론(주), 삼정기계(주) 소속 농기계 수리기사들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더자임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17일, 도로 안전시설물 전문가인 (주)더자임 김경용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노안농공단지에 소재한 (주)더자임은 난간, 울타리, 승강장 등 안전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생산·납품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생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 온 기업이다. /남원=김기두기자

건협 전북지부, 노년기 혈관 건강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 캠페인을 펼쳤다. 건협 전북지부는 17일 중부노년복지센터에서 노년기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혈관 건강 검진 및 정보 제공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와 혈관 노화도 검사를 진행해 개인별 혈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 교육과 맞춤형 건강 상담도 함께 이뤄져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단순 검진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을 비롯해 청년층 대상 맞춤형 검진과 고령층 심뇌혈관 정밀검사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